동서붕당

지금 시사(時事)[1]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많으나 잠시 먼저 가장 절실하고 급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건대 예로부터 국가가 믿고 유지하는 것은 사림(士林)[2]이라 합니다. 사림이란 나라의 원기(元氣)[3]입니다. 사림이 왕성하고 화합하면 그 나라는 다스려지고, 사림이 부딪치고 분열하면 그 나라는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사림이 손상되어 다 없어지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니, 그렇게 된 자취는 역사책에 밝게 실려 있습니다.

한 나라의 다스려짐과 혼란함, 흥하고 망함은 이 사림을 말미암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은 일의 이치나 형세의 필연적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림은 과연 화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1 시사(時事): 그 당시에 생긴 세상의 여러 가지 일
2 사림(士林): 선비 사회. 다른 말로 사류(士類) 또는 유림(儒林)이라고도 함
3 원기(元氣): 만물의 생명력이 되는 기운

알 수 없습니다만, 다만 동서(東西) 붕당(朋黨)의 설이 지금의 큰 빌미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제가 깊이 근심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일 꾸미기를 좋아하고 말을 지어내는 이들은 동서(東西)의 설을 만들어 내어서, 공사(公私)와 득실을 막론하고 다만 심의겸(沈義謙)[4]을 편드는 이를 서인(西人)이라 하고, 김효원(金孝元)[5]을 편드는 이를 동인(東人)이라 하였습니다. 조정의 벼슬아치 중 범상하고 용렬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면 모두 동인과 서인으로 지목되는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설

이 글은 사림이 무엇이며 어떤 존재인지 또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 밝히고, 동서의 붕당이 생긴 연유를 말하고 있다. 문장이 길어서 생략했지만, 그간 붕당이 생긴 과정을 상세히 적고 있다.

심의겸과 김효원을 중심으로 붕당이 생기게 된 일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것이 결코 아니다. 여기에는 이 두 사람의 해묵은 감

---

4 심의겸(沈義謙): 1535~1587. 명종~선조 때의 문신. 이황의 문인이자 인순왕후의 동생으로 왕의 외척이었으나 사림을 그의 외숙인 이량(李樑)으로부터 보호한 공이 있다. 김효원과 대립하면서 그와 함께 동서붕당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5 김효원(金孝元): 1542~1590. 명종~선조 때의 문신. 조식과 이황의 문인으로 청렴결백한 선비로서 신진 사류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심의겸과 대립하면서 그와 함께 동서붕당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정과 함께 당시 정치계의 역학 관계도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앞의 1575년(선조8)에 선생이 선조에게 올린 말처럼 두 사람에게 어떤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서 서로 원한을 갖는 사이가 아니라, '말세의 풍속'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잘 말해주고 있다. 물론 이 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세의 풍속'을 도덕적 관점이 아닌 인간사에서 볼 때 인간은 대개 자기가 속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을 가지는 존재로, 오늘날 관점에서 해석해 볼 때는 당연한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두 사람의 개인적 문제가 역사적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고나 할까?

이렇게 동서의 붕당을 뜻하는 동서의 설은 겉으로 볼 때 심의겸과 김효원의 묵은 사적인 감정에서 출발했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놓여 있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정치 상황에서 늘 있는 것으로 구세력과 신진세력의 대립이 그것이다. 당시 재상(宰相)을 중심으로 한 구세력을 대표하던 인물이 심의겸이고, 김효원은 새롭게 등장하는 신진세력의 구심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학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붕당을 선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 조장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어떤 학자들은 붕당정치가 왕성할 때 되레 백성들이 살기 좋았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서로 상대방을 견제했기 때문이고, 붕당정치가 없어진 세도정권 때는 되레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더 연구해 봐야 하겠지만, 오늘날 정치 상황으로 봐서는 일리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

사실 오늘날은 이런 붕당 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것이 정당이다. 그래서 각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들은 서로 상대방의 실수나 실책을 놓고 물고 늘어지며 이전투구처럼 싸운다. 어쩌면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은 한술 더 떠 그것을 부추기며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심지어 가짜 뉴스까지 횡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싸움의 심판자는 누구인가? 과거에는 왕이었지만, 오늘날은 국민이다. 국민이 투표를 통하여 이들 싸움을 심판한다. 그래서 국민의 안목과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

한문 원전 음미하기

士林者는 有國之元氣也라.
사 림 자 유 국 지 원 기 야

士林盛而和하면 則其國治하고,
사 림 성 이 화 즉 기 국 치

士林激而分하면 則其國亂하고,
사 림 격 이 분 즉 기 국 란

士林敗而盡하면 則其國亡하니라.
사 림 패 이 진 즉 기 국 망

» 어휘 풀이

士林: 선비 사회. 유림/者: ~라는 것/有: 명사나 형용사 앞에서 두 낱말이 붙어 하나의 뜻을 만드는 역할로 번역하지 않음/之: ~의/元氣: 만물의 생명력이 되는 기운/也: 문장 뒤에 오는 어조사/盛: 왕성하다/而: 문장을 접속하는 어조사/和: 화합하다/則: 조건절과 주절을 이어주는 접속사로서 '~하면'의 뜻/其: 대명사로서 '그'의 뜻/國: 나라/治: 다스리다/激: 물결이 부딪쳐 흐르다/分: 나누다/亂: 어지럽다, 혼란스럽다/敗: 무너지다, 부서지다/盡: 다하다, 없어지다/亡: 망하다

» 문장 구조

1. 크게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뒤의 큰 문장은 다시 세 문장으로 나누어지는데 모두 같은 구조로 병렬되어 있다.
2. '士林者, 有國之元氣也'는 주어+동사+보어의 영어 2형식과 유사한 문장이다. 주어는 士林者이고, 士林만 해도 주어가 되는데 굳이 者 자를 첨가한 것은 구 가운데 사용되어 제시와 정지를 나타내는 어기사(語氣詞) 역할을 하기 위함인데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be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也이다. 그리고 有國之元氣가 주격보어에 해당되는데, 有는 번역

하지 않아도 된다. 또 國은 元氣를 꾸며주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관형격 조사인 之이다. 그래서 '~者 ~也'는 보통 '~라는 것은 ~이다'로 번역한다.

3. '士林盛而和, 則其國治'는 조건절과 주절로 이루어진 제각기 주어+술어 형식의 문장으로 '士林盛而和'가 조건절, '其國治'가 주절이다. 그것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則이다.
4. '士林盛而和, 則其國治'에는 생략된 말이 많은데 원래의 문장은 '士林盛而士林和, 則士林盛而士林和之國治'인데, 반복된 주어인 士林을 생략하고 '士林盛而士林和'를 대명사 其로 바꾸면서 之 자가 빠지고 '士林盛而和, 則其國治'로 되었다. 따라서 주어는 각각 士林과 國이며 和 · 治는 동사, 盛은 형용사로 쓰였다.
5. '士林激而分, 則其國亂'과 '士林敗而盡, 則其國亡'도 앞의 문장과 동일한 구조이다. 조건절의 주어는 모두 士林이고 주절의 주어는 國이다. 激 · 分 · 亂 · 敗 · 盡 · 亡은 모두 동사이다. 亂은 원래 형용사이지만 '혼란해지다'의 의미로서 동사로 쓰였다. 그래서 모두 영어 1형식의 문장과 유사하다.

» 해석

사림이란 나라의 원기(元氣)입니다. 사림이 왕성하고 화합하면 그 나라는 다스려지고, 사림이 부딪치고 분열하면 그 나라는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사림이 손상되어 다 없어지면 나라는 망합니다.